

- 주요 뉴스: ECB, 정책금리 75bp 인상. 물가 전망 상향조정 및 추가 금리인상 시사
 - 파월 연준 의장, 블랙아웃 기간 앞두고 물가 억제 위한 강경 기조 재확인
 -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찰스 왕세자 왕위 계승
 - 미국, 9월 1주차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5월 이후 최저치 기록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파월의 매파 발언에도 불구하고 선반영으로 3대 주가지수 상승
주가 상승[0.7%], 달러화 약세[-0.1%], 금리 상승[6bp]
 - 주가: 미국 S&P 500 지수는 초반 부진을 딛고 파월 충격 털어내며 상승 마감
유로 Stoxx 600 지수는 ECB 긴축 행보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파월 발언 직후 하락했으나 이미 예견된 만큼 이내 상승 전환
유로화 가치는 0.1% 하락, 엔화는 0.3%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 주요 인사의 매파 기조를 반영
독일은 ECB의 긴축 행보로 14bp 상승. 이는 지난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 원/달러 1M NDF환율(1383.7원, +3.8원) 0.3% 상승, 한국 CDS 보합

		9/8일	9/7일	전일대비			9/8일	9/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006.2	3,979.9	0.66%	국채 금리 10y	미국	3.32%	3.26%	6bp	
	유럽	414.09	412.01	0.50%		독일	1.72%	1.58%	14bp	
	중국	3,235.6	3,246.3	-0.33%	CDS 5y	한국	31bp	31bp	0bp	
	일본	28,065	27,430	2.31%		중국	69bp	70bp	-1bp	
	한국	2,384.3	2,376.5	0.33%	위험 지표	EMBI+	426	439	-13bp	
달러지수	109.71	109.84	-0.12%	VIX		23.61	24.64	-4.18%		
유로화	0.9997	1.0006	-0.09%	WTI유						
환율	엔화	144.11	143.74		-0.26%	원자재	구리	353.6	343.8	2.85%
	위안화	6.9576	6.9658		0.12%	금				
	원화	1,380.8	1,384.2	0.25%			1,708.5	1,718.4	-0.58%	

주: 주가는 미국 S&P500, 유럽 Stoxx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ECB, 정책금리 75bp 인상. 물가 전망 상향조정 및 추가 금리인상 시사

- ECB는 8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0.50%에서 1.25%로 75bp 인상.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각각 0.75% 1.5%로 75bp씩 인상. 지난 7월 11년 만에 처음으로 빅스텝(+50bp)에 나서면서 마이너스 금리(예금)와 제로 금리(기준금리) 시대를 끝낸 뒤 두 달 만에 보폭을 키워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
- 75bp의 기준금리 인상은 199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ECB는 성명을 통해 현재의 크게 완화적인 정책금리 수준을 ECB의 물가상승률 중기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때맞춰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환의 초기 단계라고 설명
- 더불어,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장기간 목표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 ECB는 에너지·식품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강화를 지적하며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022년 8.1%, 2023년 5.5%, 2024년 2.3%로 일제히 상향조정
- 금년 경제성장을 전망치는 3.1%로 0.3%p 상향조정한 반면, 2023년과 2024년은 각각 0.9%, 1.9%로 하향.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내년 유로존의 역성장을 전망하지 않으나,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서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전면 중단될 경우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
- Evelyn Partners의 투자전략가 Rob Clarry는 금번 ECB의 조치에 대해 역내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물가(8월 CPI 전년동월비 9.1%)의 통제가 우선시된 결과라고 해석. JP Morgan은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50bp 금리 인상이 예상되나 75bp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파월 연준 의장, 블랙아웃 기간 앞두고 물가 억제 위한 강경 기조 재확인

-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카토연구소 주최 컨퍼런스에서 선부른 인플레이션 승리 선언은 적절하지 않다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굳어지면 이를 다시 낮추는데 큰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묶어두는 것이 중요
-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에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 페드워치에 반영된 9월 75bp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전일 77%에서 8일 88%까지 상승

- 같은 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9월 FOMC에서 어느 정도의 금리인상 폭을 지지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75bp 인상에 무게. 그렇게 되면 2008년 이후 정책금리가 처음으로 3%를 넘어서는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이 되는 셈
-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아젠다가 미국 경제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인플레이션이 위협적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찰스 왕세자 왕위 계승

- 엘리자베스 2세는 향년 96세로 25살에 왕위에 올라 지난 70년간 영국 국왕과 영연방의 수장으로 재임하며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랜 통치 기록을 보유. 찰스 왕세자가 즉각 왕위를 이어 받으나 공식 대관식에는 시간이 소요

■ 미국, 9월 1주차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5월 이후 최저치 기록

-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8월 28일~9월 3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2만 2천건으로 전주대비 6천건 감소하며 4주 연속 감소세를 지속. 금번 주치는 지난 5월 넷째주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시장예상치인 23만5천건을 상당폭 하회
- Oxford Economics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며 고용주들이 노동자를 해고하기보다 채용 속도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지만 단기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도 보지 않는다고 평가

■ 일본, 7월 경상흑자가 37년래 최저치 기록. 연간 기준 42년 만에 첫 적자 가능성

- 7월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2,290억엔 으로 시장예상치(7,590억엔)를 크게 하회.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022회계연도에 달러대비 엔화 환율이 120엔,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 가정시 일본의 경상수지가 9조8,000억엔 적자일 것으로 예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9/8 현지시각 기준)

- 미국 7월 소비자신용(억달러): 238, 6월(391) 예상치(320)
- 일본 2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전분기비): 0.9%, 1분기(0.1%) 예상치(0.7%)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34, E-mail konam@kcif.or.kr